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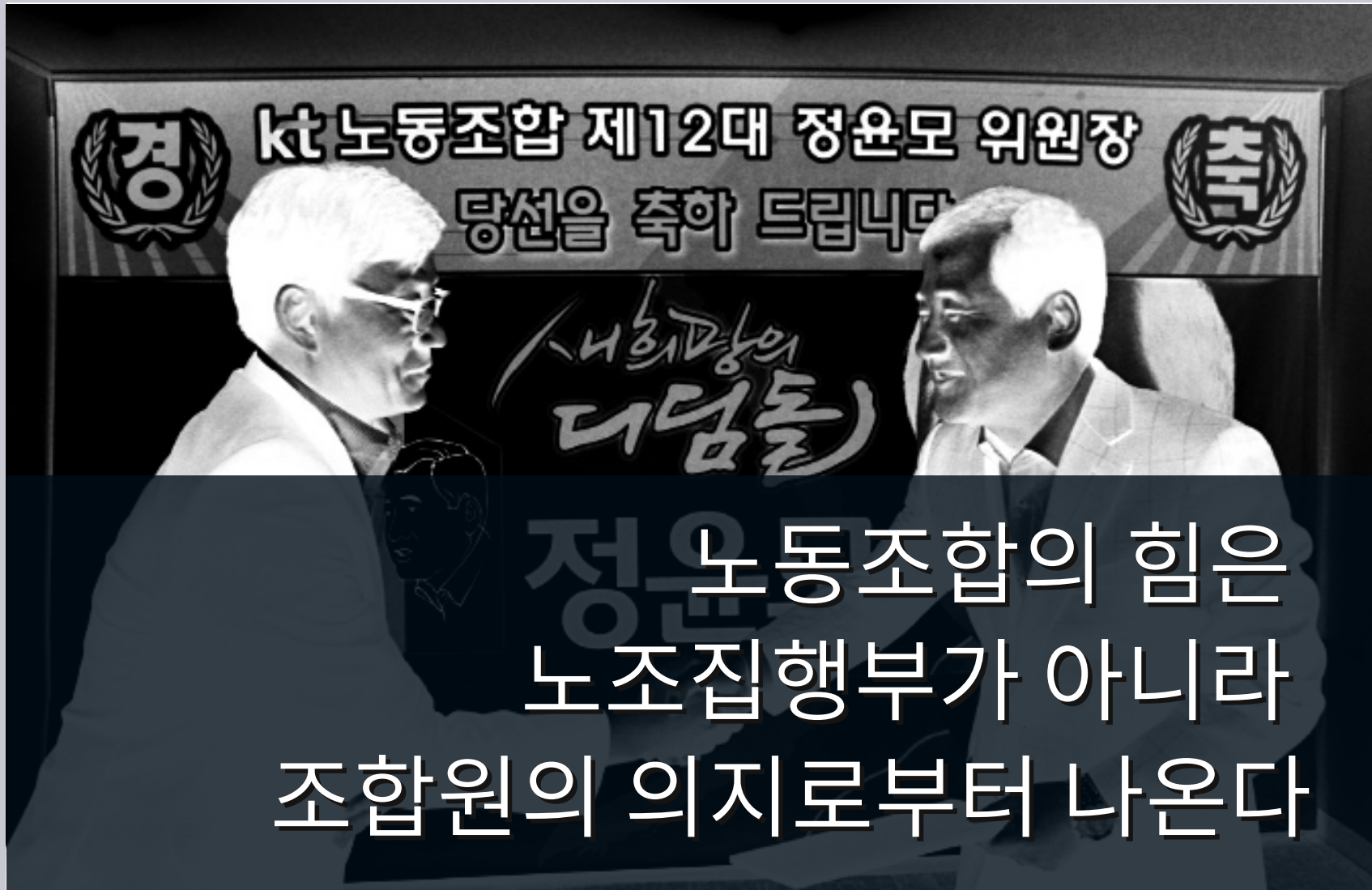


일파만파

KT새노조 소식지 2014.11.27

www.humankt.org

VOL. 21



노동조합의 힘은
노조집행부가 아니라
조합원의 의지로부터 나온다

벼랑 끝에 내몰린 KT노동자

늘 그랬듯 지난 KT노동조합 선거는 조합원을 가운데 두고 회사와 민주후보 진영 간의 힘겨루기 싸움이었다. 그 사이에서 조합원들은 많은 번민과 분노와 허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팀장, 지사장의 보이지 않는 압력 또는 노골적인 특정후보 지지 강요, 심지어 팀, 실장이 함께 있는 사무실 공간에 자리 잡은 열 명 안팎이 모두인 잘게 쪼개진 투표소와 개표소, 그런 상황에서 투표를 진행한 이번 선거는 어쩌면 무의미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두 후보 간의 싸움이 아니라 KT노동자들의 심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이 절망적 상황에 맞서 투쟁하고자 하는 의지와 두려움과의 싸움이었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선거 결과는 민주후보가 회사측에 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신과의 의지와의 싸움에서 패한 것이란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난무하는 추가 구조조정설과 불안감

정작 놀란 것은 KT 밖에서 이번 선거를 지켜보던 이들이다. "8300명을 노사합의로 쫓아낸 위원장을 또 뽑아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게 많은 이들의 의문이었다. 그 의문은 곧바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불안에 하는 KT 노동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선거결과 기존 집행부가 노동조합을 다시 장악한 현실에서 조합원들은 선거 종료와 동시에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어찌될 것이며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말이 나도는 추가구조조정은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도무지 불안하기만 하다. 한 조합원은 “임금피크제가 이미 밀실합의 된 것 같다. 선거 때문에 발표만 미뤘지 조만간 터져나올 것이다”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불안감은 자포자기로 이어진다. “다시 명퇴가 있으면 이번에도 많이 나갈 것”이라는 자조적인 얘기가 주위에 넘친다. 게다가 지난 주에는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와 KTDS가 1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 명퇴를 시행하였다. 이래저래 선거를 통한 "혹시나" 했던 기대가 사라진 현실에서 조합원들은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 되어버렸다.



추가 구조조정에 걱정할 일이 아니라 대비해야 할 일

KT노동조합 선거가 끝나자 언론들은 추가구조조정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미 황창규 회장도 임원인사를 비롯해서 연말까지 자회사 구조조정을 이야기한 바 있다. 이달 중으로 직원들의 인사평가를 마치고 곧바로 조직개편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 정리가 본사를 포함하는 KT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는 현실이다. 추가 구조조정에 대하여 직원들이 현재 느끼는 불안감은 KT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다. 솔직히 말해 이번 KT노조 선거에서 드러났듯 KT 노동자들의 불만과 용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그런 면에서 추가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해도 이에 대한 대응이 힘차게 진행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한다, 추가 구조조정은 걱정할 게 아니라 대비해야 할 사안이며 그 대비라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싸워줄 것을 기대할 일이 아니라 회사를 더 다니자고 한다면 스스로 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그리고 KT새노조는 그러한 의지 있는 KT 노동자들의 모임으로 함께 만들어가자고.

구조조정에 맞선 새로운 투쟁 구심을 만들자

통신사들의 돈 잔치는 이제 과거 같지 않다.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던 시장은 이제 포화상태이며, 국민적인 통신비 인하요구도 거셀 뿐 아니라 지금껏 엄청난 수익을 올려, 해외주주들에게 고배당하고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으로 내몰거나 비정규직으로 대체한 통신3사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은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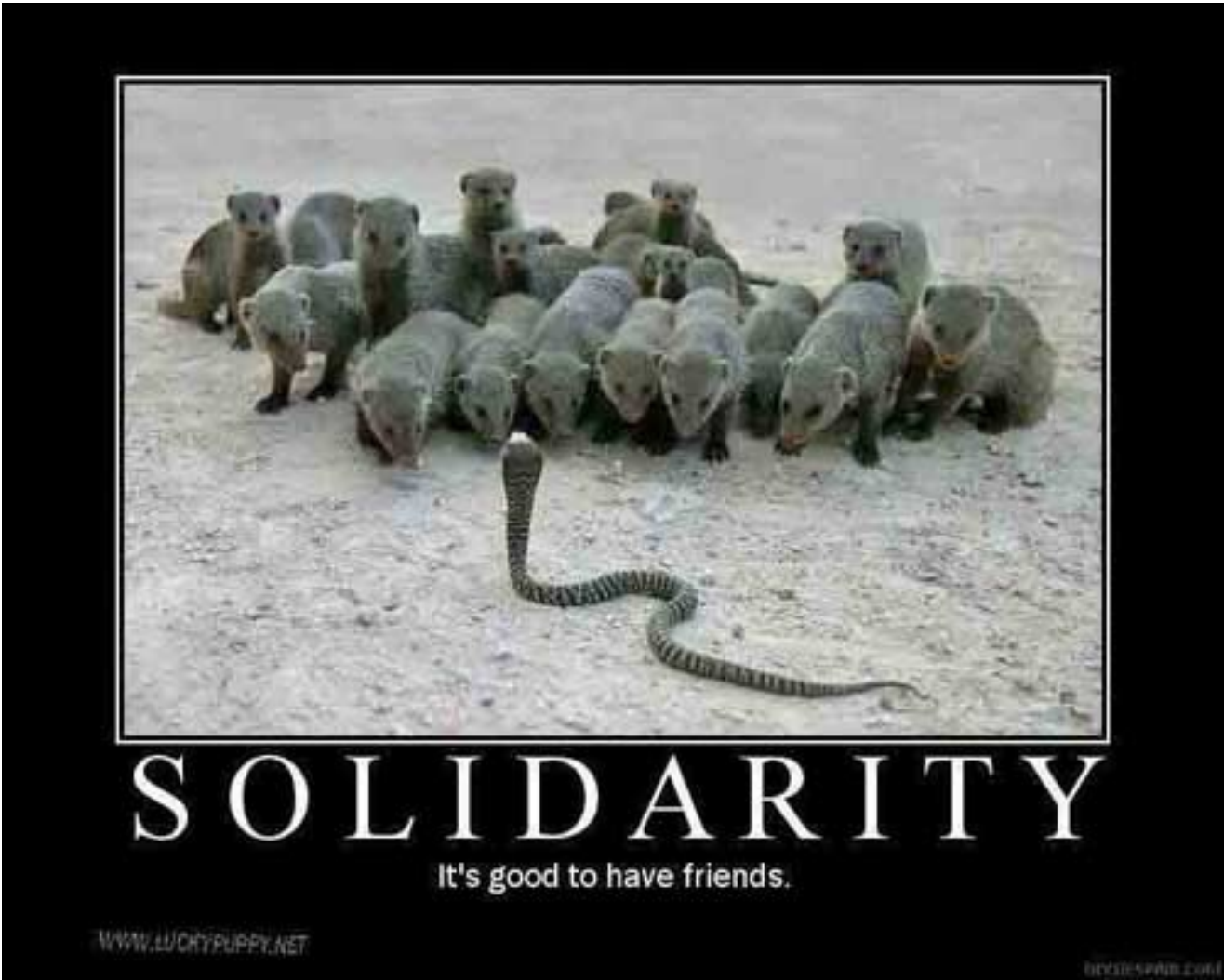
그러자 통신사들은 오히려 더욱 비용감소를 위한 구조조정 혹은 근로조건 악화를 밀어 부치고 있고 이는 통신업계 전반에 노사간 갈등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SKB, LGU+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으며, KT에서는 CFT 노동자들의 투쟁이 진행되었다. 노동자의 권리는 투쟁한 만큼 보장된다는 격언이 있듯 애초 직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CFT는 인권단체 등과의 연대투쟁이 진행되면서 많은 지점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방어하는데 성공하지 않았던가! 마찬가지로 향후 추가 구조조정에서도 명퇴 의사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 용기를 내고 투쟁의 구심을 만들고 연대하면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두려움과의 싸움에서의 결코 밀리지 않은 30%의 노동자가 있음을 우리 모두 확인할 수 있었듯 자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인 것이다.



3년 후가 아니라 당장 눈 앞의 투쟁을 위해 새노조로 뭉치자

세상이 바뀌는 것은 현실에 불만이 있는 자들이 다수여서가 아니라 그에 저항하려는 소수의 힘이 결집될 때이다. 지긋지긋한 이 KT의 현실이 안 바뀌는 것은 불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저항하려는 자가 결집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의 민주 후보의 패배는 KT 노동자들의

불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용기의 부족 때문 아닌가. 불과 7개월 전에 KT 노동자들을 대거 퇴출시키는데 합의했고 게다가 지난해 임금협상에 백지 위임했으며 올해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등을 KT에서 사라지게 만들었고 또한 앞으로 있을 임금피크제나 추가구조조정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노조위원장이 또다시 재출마한 사실에 직원들 90% 이상이 분노하지만 막상 선거결과를 보면 70%가 그 위원장을 지지하는 이러한 KT의 현실은 바로 저항하는 자가 결집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KT에 필요한 것은 저항하려는 소수이며 반드시 KT에 살아남겠다고 스스로를 다짐한 노동자들의 힘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에 우리는 감히 제안한다. 많은 두려움과 악 조건 속에서 민주후보를 지지한 그 30%에게 우리 스스로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새노조로 결집하자! 3년에 한번 노조 선거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소극적 방식을 넘어서서 KT새노조를 통해 나의 삶과 KT와 대한민국 통신공공성을 망치는 잘못된 현실을 바꾸어내는 운동에 직접 참여하자. 3년을 기다려 어용노조를 민주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눈 앞으로 다가온 구조조정에 맞서 스스로가 투쟁하는 노동자가 되자! 그리고 그런 의지로 우리 모두가 KT새노조로 모아자!

괴롭힘 이젠 그만! 제발 그만!

"KT는 괴롭힘이 유일한 경영전략이다"

지난 11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괴롭혀서 제 발로 나가라고? 제발 그만!” 이라는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회(이하 KT 괴롭힘 보고회)에서 나온 김동현 변호사의 이야기이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했다.

"KT 경영진은 비전 제시를 통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업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 직원들에게 실적을 강요하고, 실적이 나쁠 경우 더욱 강도 높은 괴롭힘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그의 지적은 지금 KT에 미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고령의 노동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비전을 상실한 경영진 때문인 것이다. 이 보고회는 지난 4월 8,300명을 내보내고도 모자라 CFT라는 엽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 전담조직을 만든 KT의 실태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직장내 괴롭힘을 이슈화하기 위해 인권, 법조계, 의료계 등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연구하고 보고하는 자리였다.

KT 명퇴의 역사는 곧 괴롭힘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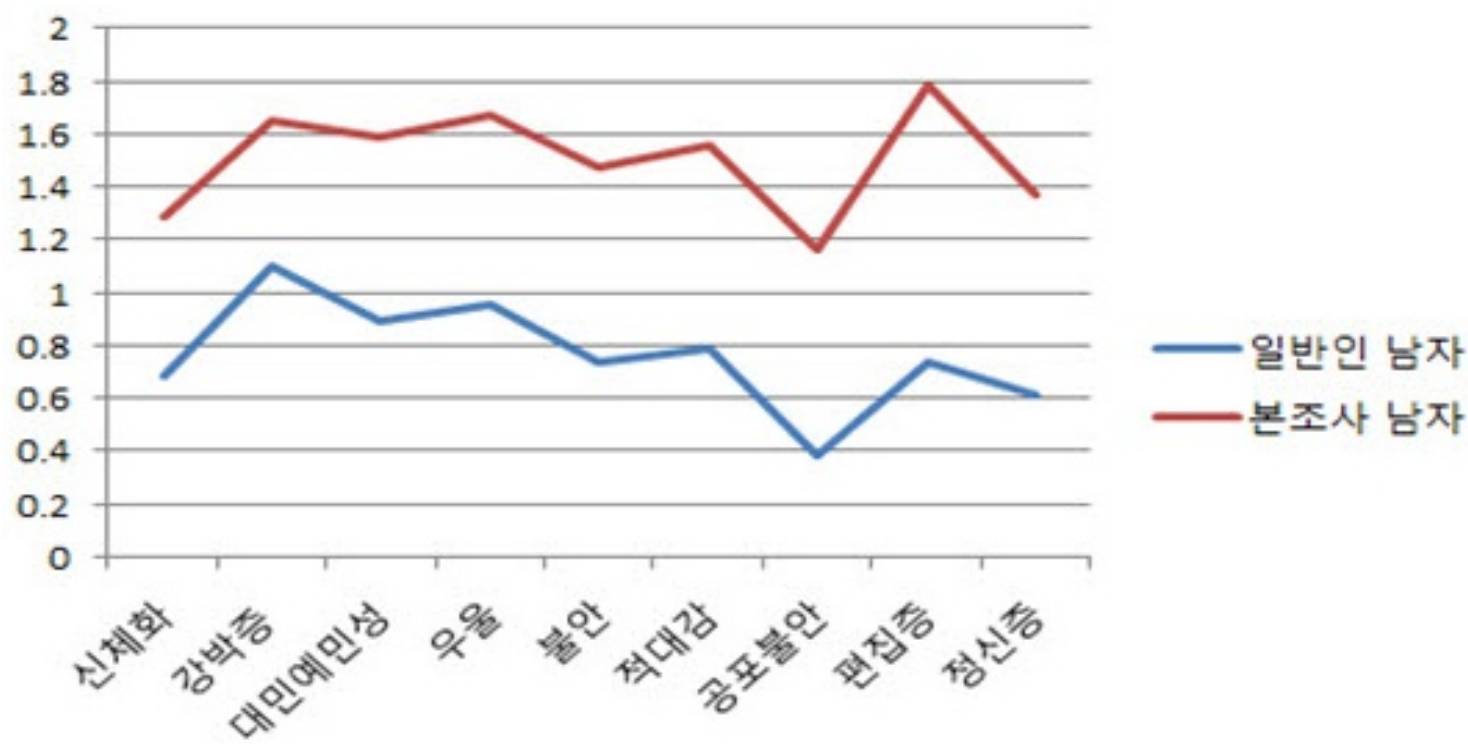
KT는 통신시장의 개방과 경쟁도입 그리고 한국통신 민영화 등 경영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감원을 시행했다. 그 규모만도 무려 37,666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곧 괴롭힘의 역사이기도 하다. 2003년 ‘상품판매전담팀’, 2006년 C-P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고, 그 연장선에서 금년 4월 역대 최대 규모인 8,300여명의 노동자들을 명예퇴직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한 사람들을 CFT(Cross Function Team)이라는 신설 조직을 만들어 별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은 원거리 발령, 기존 업무에서의 배제, 능력 이하의 업무 배당, 불쾌한 업무로 대체, 무시와 소외 같은 것들이었다.



7년간 사망자 300명!! 죽음의 기업 KT 오명 벗어나야...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KT 노동자들은 고강도의 스트레스에 상시적으로 시달려 왔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자살 및 돌연사 등으로 확인된 사망자 수만 무려 300명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현직 의사로 이번 조사 과정에 참여한 원진녹생병 임상혁 박사가 이 날 CFT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가히 충격적이었다. CFT 정신건강 실태를 보면 모든 지표가 일반 인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할수록 신체화(즉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에까지 병들게 하는 것), 강박증, 대민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 편집증, 정신증 등의 항목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CFT 설문 분석자료)



즉, 직장 내에서 괴롭힘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 수록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발생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현직 의사의 발표로 확인된 것이다. 직장은 노동자가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의 공간이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라는 점에서 노동자는 직장 내에서도 존중 받아야 하는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반복될 경우 노동자들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건강에 심각한 훼손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KT는 직장 내 괴롭힘이 경영전략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권운동가인 명숙은 KT 직장 내 괴롭힘이 명퇴압박과 관련되어 있다며 그 특징을 이렇게 분석했다.

“

특히 KT에서 경영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과정에서 심한 모욕감을 주거나 직장 내 인간관계의 파괴와 차별 등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점, 그 결과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 괴롭힘을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 되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조조정과 괴롭힘의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어 있다.”

KT 대표적 서비스 산업!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은 사람!

물론 통신산업은 최근 가장 심한 기술 및 경영 환경의 변화를 보인 산업이다.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해주던 대표적 노동집약 산업에서 최첨단 장비로 인간 노동의 상당부분을 대체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이행이 눈부신 산업임에 틀림없고, 그런 만큼 변화가 불가피한 점도 있다. 그래서 이른바 경영 합리화,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이 전 세계적으로 횡행했던 것도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지 않은가! 오늘날 KT는 대표적인 통신 서비스 회사가 된 것이며 그 서비스의 질은 종사자, 즉 KT 노동자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결국 사람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때 다 옆 동료가 조직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을 봤고 이젠 필요 없으니 KT를 떠날 것을 종용 받았던 노동자에게서 어떤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는가?



진정한 사람존중 경영이 필요한 때

이번 보고대회는 KT 경영진만을 성토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우리 직원들 스스로 반성해야 할 지적도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그 중에서도 왕따를 지시하는 것은 회사 경영진이지만 이를 시행하는 것은 동료들이다"는 증언이야말로 오늘날 KT가 처한 심각한 노동인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해준다. 왕따 당하는 것에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침묵했다면 과연 우리가 KT의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가 회사 경영진만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수용되는 문화야말로, 가해자, 피해자 할 것 없이 KT 구성원 모두가 우울을 앓게 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이자 곧 피해자인지 모른다.

“인간은 일회용품이 아니다”

LGU+ 콜센터 노동자의 자살을 추모하며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상담사 이아무개(30)씨가 회사의 노동착취와 상품판매 강요 등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북 전주에 있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 민원팀에서 일하던 이씨는 지난 달 중순께 퇴사했고, 일주일 정도 뒤인 10월 21일께 총 5장의 유서를 남기고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유서의 내용은 마치 우리 KT의 이야기인 것 같을 만큼 모든 것이 똑 같다. 늦게 까지 회사에서 퇴근조차 못하게 만드는 강압적인 장시간 근무 분위기, 상품판매 건수를 목표로 주고 이를 채울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 해지방어 부서에서 고객의 해지 요구를 처리해주면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는 이야기까지.



지금 KT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다른 통신사들과 다르지 않음을 이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또 어디에 있을까?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 죽음에 대한 LG유플러스 회사의 해명조차도 KT의 그것과 완전히 똑같다는 점이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개인적으로 남아서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상품판매 역시 판매기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JTBC는 퇴근을 안 시켰다는 내용에 대한 회사의 해명을 “실적이 낮다고 강제로 남긴 적이 없고, 직원들이 스스로 부족한 점을 메우려고 추가 근무를 했다는 것”

이라고 전했다. KT도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갔지만 회사의 잘못을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 않던가!

“통신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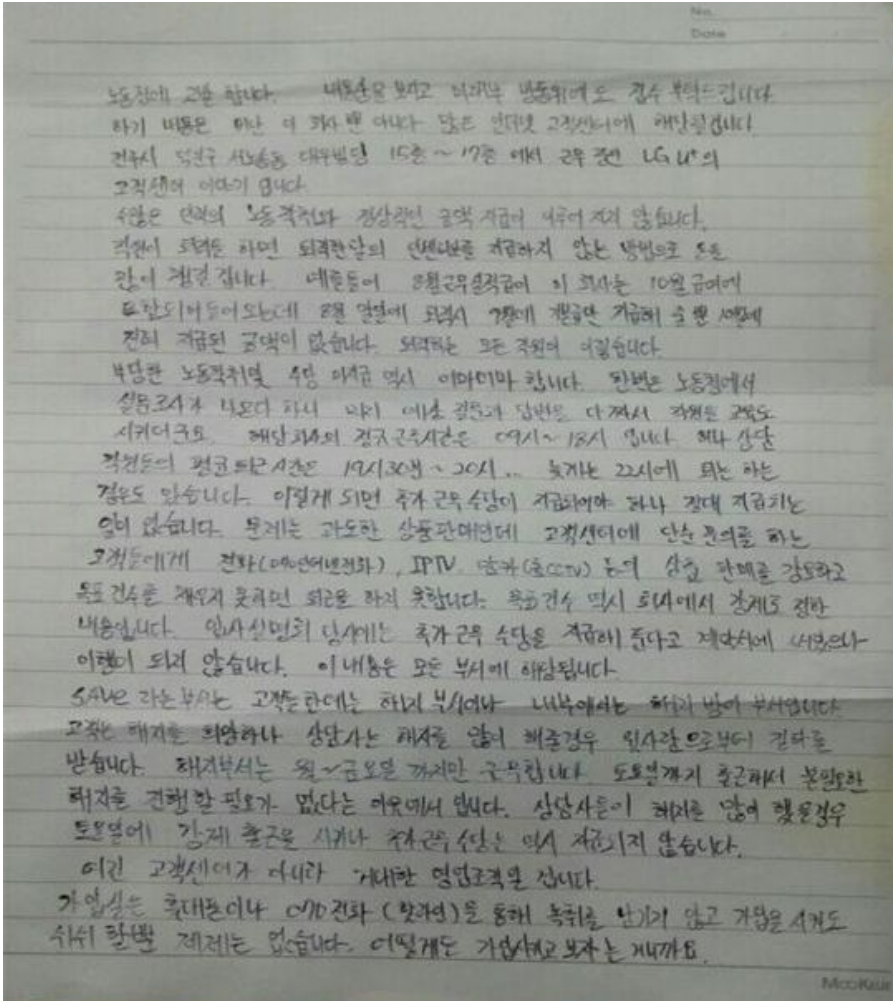
최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연일 LG유플러스를 성토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회에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기업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비인간적 실적관리 및 평가시스템, 비합리적 조직문화에 따른 초장시간 노동 및 임금 미지급 등 LG유플러스 상담원이 겪은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노동하는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경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인은 LG유플러스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고객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이었지만 회사는 그에게 ‘불만이 있는 고객’에게 IPTV 등 상품을 판매하라고 강요했다”며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는 통신재벌들의 행태를 규탄했다.



결국 이 자살이야 말로 노동자를 한낱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는 기업의 야만과 폭력이 만들어 낸 사회적 타살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 동안 KT에서도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이러한 사회적 타살의 희생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 우리 KT 노동자들도 KT의 우울의 직장 문화를 KT만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사회적 타살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대응에 함께 해야 한다. “통신사 간의 치열한 경쟁은 사람(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노동자)을 죽도록

부러먹기 위한 것”이라는 한 통신 노동자의 독백이야 말로 지금 통신3사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연대임을 웅변해 준다.

다음은 고인이 노동청, 미래부, 방통위에 접수해 달라며 남긴 유서의 사진과 그 내용 중 일부이다.



“문제는 과도한 상품판매인데 고객센터에 단순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전화, IPTV, 맘카(홈CCTV) 등의 상품 판매를 강요하고 목표건수를 채우지 못하면 퇴근을 하지 못합니다. 목표건수 역시 회사에서 강제로 정한 내용입니다. 입사설명회 당시에는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준다고 계약서에 써 있으나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부서에 해당됩니다. SAVE라는 부서는 고객들한테는 해지부서이나 내부에서는 해지방어부서입니다. 고객은 해지를 희망하나 상담사는 해지를 많이 해줄 경우 윗사람으로부터 질타를 받습니다. 해지부서는 월~금요일까지만 근무합니다. 토요일까지 출근해서 불필요한 해지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상담사들이 해지를 많이 했을 경우 토요일에 강제출근을 시키거나 추가근무수당은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